

2024. 3. 26.(화) 석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4년 3월 26일 오전 06:00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 :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협력과

자치경찰협력과장

김병주

2133-9831

교통경비팀장

김대홍

2133-9842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 : 3쪽

담당자

강승철

2133-9846

"시민 여러분, '여의도 봄꽃축제' 마음껏 즐기세요. 안전은 저희가 지킵게요!"

-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, 26일(화) 영등포경찰서와 '여의도 봄꽃축제' 현장 안전 관리 상황 점검
- 자체 개발한 '사전 위험성 평가지표', '다중운집행사 안전관리 전문위원단' 활용해 안전사고 예방
- 서울시, 3월 28일(목) 12시부터 4월 4일(목) 22시까지 여의서로 빗꽃길 1.7km 구간 교통통제

-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(이하 "서울시 자경위")는 3월 29일(금)부터 4월 2일(화)까지 개최되는 '여의도 봄꽃축제' 기간에 약 350만 명의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, 영등포경찰서와 함께 26일(화) 여의도 윤중로 일대의 안전 관리 상황을 점검한다.
- 서울시 자경위는 영등포경찰서장(총경 강상문)에게 교통통제 및 인파 관리 등 축제 현장 안전대책 준비 상황을 듣고, 윤중로 인파 운집 상황과 주변 위험시설물 등을 파악하기 위해 행사장 주변을 도보로 현장 점검한다.
- 서울시 자경위는 많은 인파가 모이는 행사의 안전 관리를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'안전관리 전문위원단'을 '23년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. 매 분기별 위험성 높은 다중운집 행사를 사전에 선정해 서울경찰청을 통해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.
- 한편, 서울시 자경위는 지난 1월 자체 연구를 통해 <다중운집행사 사전 위험성 평가지표 개발과 사례연구>를 발간했다. 연구 결과는 서울시 경

찰서(31곳)와 자치구(25곳)에 전달돼 지역행사 개최 시 체계적으로 안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.

□ ‘안전관리 전문위원단’은 18일(월)에 서울시 전역에서 개최되는 2분기 주요 행사에 대한 사전 위험성을 평가하고, 19일(화)에 열린 ‘제125차 서울시 자경위 정기회의’에서 ‘여의도 봄꽃축제’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를 서울경찰청에 지휘·의결한 바 있다.

□ 서울시 자경위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▲경찰 경력 배치 및 소방·구급차 비상통행로 확보 ▲인파 증가에 따른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 등 비상시 대응체계를 사전에 점검해 혹시 모를 안전사고를 예방한다.

○ 또한, 영등포경찰서는 차량 돌진·이상동기범죄 등을 대비하기 위해 지난 2월 출범한 기동순찰대 8개 팀을 축제 현장에 30일(토)부터 31일(일)까지 집중배치해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.

□ 한편, 서울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봄꽃을 관람할 수 있도록 3월 28일(목) 12시부터 4월 4일(목) 22시까지 여의서로 벚꽃길 1.7km 구간의 교통을 통제한다.

□ 김학배 서울시 자치경찰위원장은 “이번 현장 방문은 ‘안전관리 전문위원단’과 ‘서울시 자경위 정기회의’에서 중점 관리 대상으로 평가한 ‘여의도 봄꽃축제’의 안전대책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”라며, “연중 개최되는 지역축제에 한 건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 자경위가 최선을 다해 안전 관리를 지원할 것이다”고 말했다.



<여의도 봄꽃축제 경찰상황실 방문>



<여의도 봄꽃축제 현장점검>



<3.18.(월) '안전관리 전문위원회' 회의>



<3.18.(월) '안전관리 전문위원회' 회의>